



# 보물

전 성 철

오후부터 구질구질 내리던 비는 저녁녘이 되어서야 멎었습니다. 어데선가 바람이 불어오자 구름들이 바다쪽으로 서서히 몰려갔습니다.

마을앞산은 아직도 뽕안 물안개속에 잠겨 뿌옇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길가의 가로수들과 잔디밭들은 생생한 기운을 뽐치였고 잎사귀들은 한들한들 춤을 추었습니다.

초연이네 집으로 가는 나의 마음도 싱싱한 저 풀잎처럼 기쁨에 한껏 넘쳐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겐 단추알만 한 보석장식품이 소중한 간직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깨알같은 청옥과 홍옥알갱이들을 촘촘히 쪼아박은 것이었는데 거기에서는 붉은빛과 푸른빛이 뿜어져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황홀한지 몰랐습니다.

초급중학교 1학년인 우리는 매일 기초기술과목시간에 장식단추만들기를 합니다. 교과서 그림에 있는 금강석, 굽돌, 유리, 금속, 수지, 조가비 등 여러가지 재로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연이에게 장식단추를 만들 보석장식품을 가지고가는 길입니다.

(초연이가 이걸 보면 아마 깜짝 놀라겠지?)

나는 치마주머니안에서 보석장식품을 꺼내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은 내가 방안에서 한창 숙제를 하고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갑자기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굴까?)

나는 급히 일어나 전실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초연이가 금방 뛰어온듯 숨이

차서 할딱거리며 서있었습니다. 소학교때부터 제일 친한 사이인 초연이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달려오곤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나는 눈이 둥그래서 초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유경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글썄...》

초연이는 기가 막힌듯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숨을 쉬고나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초연이는 방안에 들어서자 옷장문부터 열었습니다. 옷장구석에 조가비가 들어있는 두주먹을 합친것만 한 빨간 천주머니를 넣어두었던것입니다. 초연이는 소학교 3학년생인 동생 진철이가 장난할가봐 그렇게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가비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빈 주머니만 후렁한채 놓여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안에 있던 조가비를 누가 치웠나요?》

초연이는 빈 주머니를 흔들어보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바느질을 하던 할머니가 안경너머로 초연이를 건너다보며 말했습니다.

《며칠전엔가 진철이가 동무네 집 어항에 조가비를 깔아준다면서 가지고나가더라.》

《예?!》

초연이는 그만에야 억이 막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초기술과목시간에 장식단추를 만들려고 따로 전사해두었던것인데 글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리하여 초연이는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왔다는것입니다...

《난 또 큰일난줄 알았구나, 애두 참.》  
나는 초연이에게 눈을 꼭게 흘려보이면서 소리내어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자 초연이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보이며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저… 유경아, 너에게 있는 조가비를 나에게 딱 한개만 주려마, 응?》

《뭘? 조가비? 아니, 그게 없어진지 언제 인데…》

나는 어이없는 눈길로 초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조가비로 말하면 지난 여름방학 때 초연이와 내가 삼동마을에 놀러갔다가 가져온것입니다. 삼동마을은 시내에서 10리 정도 떨어져있는 바다가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외할머니네 집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집이 초연이네 큰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초연이네 큰아버지는 제대군관이었는데 지난해 봄에 고향마을에 왔습니다.

그후부터 우리는 가끔 일요일이나 방학기간에 삼동마을로 자주 놀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연이와 내가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름방학기간에 초연이와 나는 방학숙제를 제격 해치우고 하루종일 바다가에 나가 해수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가 도래곶이에서 뜻밖에도 화순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순언니는 내가 어려서 외가집에서 살 때부터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중학생이었는데 나를 얼마나 고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했는데 자주 고향마을에 내려와 바다풀을 가지고 새로운 첨가제를 연구하고있었습니다.

《유경이가 아니냐? 그새 몰라보게 컸구나!》

언니는 나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와했습니다.

《언니, 내 동무 초연이예요.》

나는 옆에 서있는 초연이를 가리키며 얼굴에 웃음을 함뱉 담았습니다.

《그래, 참 영특하게 생겼구나!》

언니는 초연이를 정답게 굶어보며 생긋 웃어보였습니다.

그날 언니는 주머니에서 고운 조가비들을 꺼내어 초연이와 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가비들은 얼마나 희한한지 몰랐습니다.

하얀 차돌처럼 반들반들한것이 있는가 하면 파란색, 연분홍색들이 무지개처럼 어울린 자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름이 부채살모양으로 된것도 있고 무늬가 알락달락한것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만난 기념으로 이 조가비들을 주마. 이걸 내가 바다가에서 제일 고운것으로 골라놓은거야.》

그러자 초연이는 조가비를 손에 들고 마치 그 무슨 보물이라도 얻은듯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날 초연이와 나는 언니를 도와 도래곶이에서 바다풀을 뜯었습니다.

그곳에는 애기말풀, 거마리풀같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 바다풀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바다풀을 언니가 깊은 물속에까지 들어가 뜯어올 때면 꼭 영화에 나오는 해녀같았습니다. 해염은 또 얼마나 잘치게 말입니다.

언니에게서 방학숙제를 도움받기도 하고 바다풀도 뜯고 해수욕도 하면서 즐겁게 방학을 보낸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 조가비들을 책상뺨람안에 정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몇달만에는 그것을 감감 잊고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그 조가비들을 다 집어던지고말았습니다. 이제야 초급중학생이 되었는데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철부지처럼 아직도 그런걸 가지고 장난한다고 나무랄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초연인 아직도 그 조가비를, 참…

어처구니없어하는 나의 기색을 띄여본 초연이는 실망한듯 호- 하고 가는숨을 내긋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초연아, 됐어. 장식단추야 번쩍번쩍한걸 가지고 만들어야지 조가비야 어디 빛이나니? 내가 줌전에 편의사업소에서 일하는 우리 삼촌한테 말했는데 멋있는 보석을 구해줄거야. 좋지?》

나는 방금전에 삼촌에게 장식단추를 만들 인조보석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걸었던것입니다.

나는 방안으로 뽀르르 달려가 다시 송수화기를 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마치고 전실에 나오니 초연이는 뽀로통해서 언제 왔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으-응, 새뚝쟁이 같은거.》

나는 초연이가 앞에 있기라도 한듯 이렇게 종알거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비가 몇을무렵 우리 삼촌이 똑같이 생긴 보석장식품 두개를 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올줄이야....

《야— 난 우리 삼촌이 제일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손뼉까지 찰싹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연이네 집으로 종종걸음을 놓고있었습니다.

내가 초연이네 아빠트현관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파란 비옷을 입은 초연이가 동생 진철이와 함께 어디에 갔다오는지 집에 들어서고있는게 아닙니까.

《초연아, 자, 보석이야.》

나는 얼른 보석장식품을 초연이 손에 쥐여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연이는 난처한 기색을 지었습니다.

《유경아, 미안해. 난 이제 금방 삼동마을에 가서 조가비를 주어오는 길이야.》

《뭘? 조가비?》

나는 놀란 눈길로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내배인 초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습니다.

《앤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획 돌아섰습니다.

동무의 진정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쩌면...

나는 발이 어떻게 땅에 닿는지도 모르고

돌파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경아—》

등뒤에서 안타깝게 찾는 초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x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법석 떠들고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준비한 재료들을 내보이며 자랑에 한껏 들떠있었습니다. 어떤 애는 파르스름한 유리구슬알을, 또 어떤 애는 하얀 곱돌을, 또 어떤 애는 갖가지 색깔과 모양의 수지쪼각들... 그속에는 조가비를 가져온 애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우쭐해졌습니다. 나처럼 보석을 가져온 애는 한명도 없었던것입니다. 나는 책상위에 보석장식품을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보석이 아니야?》

옆에 앉은 애가 눈이 울롱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뽀내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아이들이 내 책상앞에 빙— 둘러서서 한파디씩 했습니다.

《야— 멋있다야!》

《나도 좀 보자.》

《나도.》

《나도.》

나의 어깨는 저도 모르게 한뼘이나 올라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수업종이 울리는것과 동시에 교실문이 열리더니 기초기술과목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삼시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은 허리를 꼳꼳이 펴고 일어난 아이들을 둘러보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그러자 아이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수업준비해온것을 검열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아이들은 좋아서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장식단추 만들 감들을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창문쪽줄 책상부터 차례차례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애의 책상앞에 가서는 빙그레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애의 책상앞에 가서는 머리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의것을 보아준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별쪼별쪼 웃었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눈길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내 책상앞에 와서 보석장식품을 보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속이 바글바글 끓어올랐던것입니다.

어느덧 벽쪽줄로 걸음을 옮긴 선생님이 나의 책상앞에 다가섰을 때였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 자리에서 움쭉 일어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자리에 앉히시더니 책상위에 놓여있는 보석장식품을 집어드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시더니 얼굴에 알릴듯말듯 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생님이 무슨 칭찬을 하실가 하고 콩콩 뛴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뒤에 앉은 초연이의 책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이상하여 머리를 기웃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오자 초연이는 그체서야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내가 준 보석일가? 아니면 조가비일가?)

나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서로 엇갈려 돌아갔습니다.

사실 어제 있던 일로 하여 속이 틀어지긴 했지만 나는 초연이가 책상위에 내가 준 보석장식품을 올려놓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음순간 초연이의 책가방에서는 빨간 천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나는 호기심어린 눈길로 빨간 천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글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연이는 빨간 천주머니끈을 조심히 풀었습니다.

짜르륵-

초연이의 책상위에 무늬고운 조가비들이 좌르르 쏟아졌습니다.

《히야!-》

아이들은 일시에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번에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흥, 고집쟁이 같은거. 저 앤 이제 보나마나 선생님이 그냥 지나칠거야.)

나는 공연한 기대를 가졌던 자신을 후회하며 꼬부장해서 속눈섭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조가비들은 어디서 났어요?》

선생님의 다정한 물음에 초연이는 수줍어하며 띠염



띠엄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삼동마을… 바다가에 가서…》

《어제 오후? 아니, 그럼 비를 맞으면서?…》

선생님은 조금 놀라는듯 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에 웃음을 피워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초연이 어떻게 되어 비를 맞으면서까지 그 먼곳에 조가비를 주으러 갈 생각을 했어요?》

《저…》

초연이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잠시 주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어서 얘기해보세요.》

선생님의 고무적인 어조에 힘을 얻었는지 초연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그려보는듯 눈을 가늘게 쪼프리더니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연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던 나는 그만 놀랐습니다.

지난 여름방학때 있었던 화순언니에 대한 이야기였기때문입니다.

그날도 방학숙제를 하고난 초연이와 나는 언니를 찾아 도래굴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뜻밖에도 바다기슭에 쓰러지다싶이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너럭바위우에는 여러가지 바다풀이 무저있구요.

놀란 우리가 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언니, 이렇게 아픈데 왜 계속 일하나요?》

초연이와 나는 언니의 팔을 잡고 눈물이 그렇게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애써 빙긋이 웃더니 초연이와 나를 꼭 껴안고 바다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열이 나구 힘이 드는걸 가지구 연구사업을 중단하면 되니? 정말이지 내 고향 바다엔 버릴것이 하나도 없단다. 이제 보렴, 바다에서 쓸모없이 자라던 이 풀들이 앞으로는 모두 미역, 다시마, 김 같은 맛 좋고 영양가높은 음식감으로 될게다. 그뎨 내 고향의 바다에 온통 보물들이 가득차넘칠거야. 그래서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내 고향의 바다는 말그대로 물고기뿐아니라 쓸모없이 자라던 바다풀도 맛있는 바다나물로 풍년이 드는 황금해가 될거야. 난… 난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고싶구나.》

이러면서 언니는 다시 안간힘을 쓰며 일

어나 비척이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화의 나날 내 조국을 목숨바쳐 지켜 싸우던 영웅전사의 모습처럼 그렇듯 숭고하게 아니, 장하게 안겨왔습니다. 그 모습은 파도와 해풍에 씻기여 더욱 세련되고 아름다와보였습니다.

초연이는 바다풀더미결에 반짝이는 조가비 하나, 언니가 방금 물속에서 건져내왔을 조가비를 눈여겨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조가비는 세찬 파도에 씻기고씻겨져 더욱 아름다운 빛을 뽐고있었습니다.

아! 조가비.

내 고향의 조가비, 그것은 정녕 화순언니의 모습처럼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초연이는 그 조가비를 손에 꼭 쥐고 와서 전에 화순언니가 준 조가비와 함께 빨간 천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생 진철이가 제 동무에게 주었으니…

《전… 저는 화순언니처럼 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가비들로 단추랑 만들고싶어서…》

《음— 그렇됐군요. 정말 훌륭해요. 그 연구사선생님도 훌륭하고 자기 고향마을의 하찮은 조가비라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초연학생의 그 마음도 훌륭해요. 진주보석보다 더 아름다워요!》

격정에 넘친 선생님의 말씀에 이어 짜락 짜락 박수소리가 교실안에 울려퍼졌습니다. 그 박수소리는 열려진 창문을 넘어 고향마을의 하늘가로 널리 울려퍼졌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박수소리는 나의 가슴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나도 이제부턴 화순언니처럼, 저 초연이처럼 살테야.)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던 나는 초연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연아, 나에게도 그 조가비를 주렴.》

그러자 초연이는 기다렸다는듯 활짝 웃으며 다섯개나 주었습니다.

나는 그 조가비들을 두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 조가비들은 화순언니와 초연이처럼 내가 한생토록 가슴속에 깊이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험란한 빛을 뿌리는 보석보다 더 값있는 내 고향의 보물이었습니다.

해빛을 받아 령롱한 빛을 발산하는 그 조가비들은 나뿐만아니라 온 학급 아이들의 손에손에 쥐어져 가슴마다에 소중한 간직되었습니다.